여수시-시의회 사사건건 '파열음'

현안마다 충돌…진모지구 영화세트장 건립 입장차로 예산 삭감
만흥지구 임대주택 조성·박람회장 사후 활용 등 소통 부재 심각

여수시와 시의회가 사사건건 파열음을 내고 있다.

현안 사업마다 집행부와 의회가 부딪히면서 소통 부재에 따른 비판이 터져나온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갈등으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우선, 여수시가 돌산읍 진모지구에 추진 중인 영화세트장 건립 사업의 경우 여수시와 시의원들 간 입장차로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되면서 '소통 부재'로 인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완석 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시의원들은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에서 "가설건축물이 대부분인 영화세트장은 부실해서 태풍, 폭우, 화재 등에 취약하고 가장 중요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18억)를 올렸다가 전액 삭감된 뒤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재편성했다는 점에서 의회 심의를 무시한다는 말도 나온다. 당시 시의회는 "사전 보고나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반면, 여수시는 진모지구 한산·노량 영화촬영 세트장 건립비 55억원을 영화사측이 부담하고 촬영 뒤 여수시에 기부채납하는데다, 영화세트장을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여수시는 23~24일 열리는 예결위에서 사업 타당성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차 설명한다는 계획이지만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검은 모래로 유명한 여수시 만흥지구에 추진 중인 임대주택 조성사업도 양측 의견 대립에 주민들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덜컹거리는 모양새다.

여수시의회 의원들 26명 중 15명이 여수시가 추진중인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3578세대) 조성사업을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여수시가 지난 2016년 전남도로부터 검은 모래 해변 배후부지 관광휴양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승인받아놓고도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려는 것은 도시기본계획과 어긋난다는 게 이들 입장이다.

여수시는 시의회 의견과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사후 활용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많다.

여수시와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지난 2012년 박람회를 개최하며 정부로부터 받은 투자금 37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민간 매각을 준비중인 반면, 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를 놓고도 여수시와 시의회가 충돌했다. 여수시는 기독교계 단체에서 '위령' 문구를 문제 삼자 개정해달라며 재의 요구를 했다가 철회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여수시 안팎에서는 지역민들 피해가 없도록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돌산대교 다음달 12일부터 전면 통제

노후 케이블 교체·도장 공사 위해 12월 27일까지

여수 돌산대교 통행이 오는 8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면 통제된다.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교량 노후 케이블 교체·도장공사를 위해 돌산대교 양방향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모두 차단한다.

이 기간 운전자들은 '거북선대교~엑스포 박람회장~중앙동로터리~서교동로터리'로 우회 〈사진〉 해야 한다.

익산청은 지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9월 11~16일)와 여수한상대회(10월 22~24일) 기간에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돌산대교 통제로 인한 주민·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안내와 교통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 혼란도 줄일 계획이다.

지난 1984년 준공된 돌산대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76억3300만원을 들여 성능개선공사를 하고 있다. 노후케이블 교체, 케이블 도장, 교량 받침 교체, 케이블 장착구 보수보강, 강교도장 등을 시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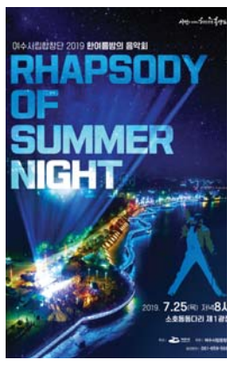
통제 기간 중 9곳의 노후 케이블 교체와 케이블 도장 작업을 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공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과 관광객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여름 밤 음악회'

25일 소호동 동다리광장서
시립합창단·국악단 등 공연



여수의 섬을 주제로 한 창작곡과 영화 수록곡, 해금 연주 등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오는 25일 오후 8시 여수시 소호동 동다리 광장에서 열리는 '한여름 밤의 음악회'에서다.

행사에는 여수시립합창단 단원 45명과 국악단·관현악단 등에서 15명이 특별 출연해 공연을 펼친다.

여수시립합창단은 창작곡인 '여수섬이야기'로 공연을 꾸미고 국악단은 해금연주로 시민들에게 여름밤 청량함을 선사한다.

또 여성중창으로 영화 'Sunny'와 '접속'에 수록된 곡을 노래하는 공연과 묵직한 남성중창, 영화 '보헤미안랩소디'에 수록된 퀸의 명곡을 들을 수 있는 공연도 이어진다.

지난해 열린 한여름 밤의 음악회에는 시민과 관광객 500여 명이 참여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지난 5월 열린 흥국상가 청춘 골목야시장 행사. 시민들이 상가 일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즐기고 있다. /여수시 제공

27일 열리는 '흥국상가 청춘 골목 야시장' 맘껏 즐기세요

볼거리·먹을거리 다채

여수시가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흥국상가 일대에서 '흥국상가 청춘 골목야시장'을 연다.

흥국상가 일대는 1980년대 후반 여수 신기동 일대에 상가, 의류점, 은행, 음식업소 등 600여 점포가 입점해 있는 곳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열악한 상가환경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행사는 흥국상가 청년사업단의 청상어 프로젝트가 전남도 사회혁신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골목야시장 행사는 지난 5월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레트로 뮤직 콘서트, 뉴트로 댄스 왕 경연대회, 마술공연을 비롯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푸드 트럭 등 먹을거리가 마련된다. 마술골목에서는 아동마술, 게릴라 마술 공연이 펼쳐지고, 마술용품도 구매할 수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도 행사에 참여, 1939 흥국문화배급소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직접 진행한다.

청년사업단 관계자는 "5월 이후 흥국상가에 감성 카페, 보세 옷 가게, 꽃집 등 청년 창업 가게 5곳이 오픈했다"며 "청년상인 간 연결망을 강화해 상생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오염물질 배출 조작 막아라" 환경감시 TF팀 구성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을 막기 위한 여수지역 환경감시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졌다.

이들 환경감시 TF팀은 팀장급 1명, 주무관 2명으로, 여수시가 관리하는 3~5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대기, 수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악취, 토양오염 등 환경 전반에 대한 감시업무를 담당한다.

최근에는 대기오염 측정값을 조작한 사업장 11곳에서 민관 합동 현장 조사에 공동 참여했다.

다음 달부터는 여수산단 3~5종 배출업소 112곳을 특별 정밀점검할 계획이다.

관할 사업장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공개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10명 이상 요청하면 해당 시설을 공개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

여수시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공개모집한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응모자격 및 공고 내용, 심사기준 및 선발방법 등을 심의했다. 현 이사장은 오는 9월 4일 임기가 끝난다.

이사장 후보 응모자격은 지방공기업법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후보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과한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공고)는 오는 8월 5일까지 17일간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